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 목표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주도에서 1박 2일간 열릴

장로 단기 세미나

제주도 복음화 전략 수립, 북방 선교를 위한 기도회,
영성 훈련 등을 내용으로

우리 교회 시무 장로 18명이 오는 15일부터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단기 세미나를 갖는다. 제주도 아세아방송국(본부장: 민산웅)의 초청 형식으로 제주에서 가지게 되는 이번 세미나

에서는 두차례에 걸친 이종윤 목사의 특강과 기도회를 가지며 현지 교회들을 답사하고 그곳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효과적인 제주도 복음화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북방선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아세아 방송선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당회원간의 영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총책임자를 맡은 이영세 장로는 보다 성숙한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을 학습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컨선, 외향선교회 선교사 파송

- 12개국에 84명 -

월드컨선 선교회(회장: 이종윤 목사)에서는 지난 달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국에 84명의 장·단기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월드컨선선교회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본부는 외향선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300여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번 파송식에서 임명을 요구한 어느 집사님은 선교사들의 정착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바치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지상명령인 선교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하였다.

◆ 우리 이웃 돕고 보기 ◆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 공단지역 복음화를 위한 『희년선교회』 -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선교단체가 있다.

협동전도사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이만열 전도사는 영동포 공단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희년선교회」를 통해 복음사역을 하고 있다. 희년선교회는 매주일의 예배와 집회 뿐 아니라 한국어 교실, 마을도서관, 노동자 부모를 위한 놀이방 등을 운영하며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컴퓨터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준비 중이다. 중국 교포와 필리핀, 내팔, 미얀마,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복음 증거에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컴퓨터 한 대를 기증하였다. 앞으로도 3~5대의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인 교육만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했던 286정도도 무방하다고 한다.

이밖에 희년선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실이나 놀이방의 교사로, 마을도서관을 돕는 일에 시간과 몸으로도 도울 수 있고 헌금으로 후원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큰 힘이 된다.

(희년선교회 / 구로구 가리봉 3동 148-40 정환빌딩 4층 ☎ 858-7829)

『가정 상담』 시간, 장소 변경

현재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던 가정상담이 오는 토요일(20일)부터는 오후 2시 ~ 5시에 실시함으로 상담시간이 30분 연장되었다. 장소도 새가족부실에서 4층 부속실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법률 및 세무 상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새가족부실에서 한다.

70인전도단 전도열기 고조

70인 전도단원들의 전도 열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에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70인 전도단원들은 축호전도팀, 병원전도팀, 터미널 전도팀으로 나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새벽 1~2시까지 전도하는 노방전도팀은 7~8명의 대원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야에 배회하는 사람들과 잠시 멈춘 차들의 운전사나 승객에게 달려가 손수 준비한 따뜻한 차,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며 복음을 뿌리고 있다.



창세기 강해



신앙의 선물

(창세기 12장 1 ~ 4절)

이 중 윤 목사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0절부터 등장하지만 12장 4절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수동적인 모습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말씀을 좇아 움직이기 시작한 4절 말씀은 중요한 계기를 예고한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머리로만 이해한 믿음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을 믿고 본토와 친척 아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을 받은대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줍니다.

1.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임과 동시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신앙 없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동시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본토와 친척 아버 집을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타향에 가서 어떻게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좇아 갔던 것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성을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갔다는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

한 것이지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2. 신앙과 순종의 관계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리고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와 교회와 가정의 권위가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무너지고 나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신앙의 단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8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9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11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11:10) 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장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 위에서 환관과 역경,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말씀은 믿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후 흩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태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4. 기적의 선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창15:5). 인간의 방법으로 어리석은 죄를 지었음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잉태할 것을 약속하시는데(창17:18) 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야가 오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배푸신 은혜를 신앙의 선물로 받았던 아브라함은 후에 그의 독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히11:17-19).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위기와 신앙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최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성자다.

예수님은 노도와 풍랑이 이는 갈릴리의 위기상황에서도 고물에게 베개를 베시고 태연히 주무셨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에게 닥쳐온 최대의 위기란 오히려 그에게겐 최대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최대의 능력 앞에 있으면서도 최대의 불신으로 떨고 있었다. 주님의 능력보다는 풍랑의 위력 앞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한 인간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대의 난국에는 최대의 신앙이 요구된다.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고 험준한 고개일수록 지팡이가 요구되듯 큰 위기를 맞이한 자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여름기획 / **미래 세계지도자들에게 새 힘을!**

◆ 나의 수험생 시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송 인 선(대학부)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지만 대학 1학년생의 특권을 누리며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종일을 잠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해 보고 하루를 책만 읽으며 보내기도 하고, 여행도 했다. 작년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맘껏 해 본 여름이었다.

작년에 난 재수생이었다. 재수하면서 내 주변에 재수생들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실상 재수생은 고3과는 달리 '죄수생'이기에 시험 준비에 지치고 힘드는 것은 마찬가지라도 당당하게 위로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다. 서로 같은 처지인 재수생들끼리도 절망감을 포용해 줄 여유를 가지기 힘든 것은 자신의 짐을 감당하는 일조차 벅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재수생들이 가슴 속에 웅어리진 것을 풀기 위해 술, 담배, 담배 따위에 빠지곤 한다. 재수하던 작년은 내게도 무척 힘든 나날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지치고 피곤한 사람만 보이고, 그들이 풍기는 음울함과 앞일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오는 무력감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됐다.

'힘들다'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버린 순간들에 하나님 밖에 없음을 철저히 깨닫곤 했다. 내 순간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주저 앉고픈 나를 채찍질 할 수 있었다. 재수를 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몸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고 되뇌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재수생으로서 저야할 내 짐을 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그 시기를 지나는 데에 힘이 되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길을 걸으며 부른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줄곧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함께 새로운 힘과 위안을 주곤 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그 처절하게 고독했을 순간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꿈꿨던 청소년 시절에 시험을 준비하며 지치고 곤고했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기에, 그 길고 힘들던 1년이란 시간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 기도 결연자를 기억하며

피곤하여 낙심치 말기를

이 신 일(권사)

가만 앉아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더위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3월에 기도로 후원하기로 하고 결연한 학생들의 집에 전화해 보았더니 방학 중인데도 모두 공부하러 도서관에, 학원에 들렀다고 한다. 지난 번 기도결연 모임에서 학생들의 기도제목을 들으며 얼마나 대견하고 마음이 든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는 학생,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책임있게 잘 완수하도록 지켜주시길 것을 부탁하는 기도를 한다'는 학생들을 보며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학생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을 것을 믿으며 감사했다.

그간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때 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구하며 기도해 왔는데 이제 더욱 더 힘써 기도로 응원하기는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셨으니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입시생 부모의 청지기직을 생각해 보며

입시생의 구조신호(S.O. S.)

홍 성 주(집사·고등부 교사)

일반적인 경우, 고교시절은 자신의 미래의 향방을 정하고 닦쳐 올 생존경쟁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인생의 첫 도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 3을 둔 가정에서는 학생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통, 신경성 질병 등을 호소하거나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면 것이 바로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처해 있음을 양해하면서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미 그들 마음 속에 가득한 근심과 조바심을 무시한 채 관심과 도움으로 착각하고 압력과 구속으로 더욱 긴장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입시란 우리가 사는 제도 하에서의 하나의 경쟁방식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너무 비중을 두어 인생의 성공여부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시험 점수, 출신대학 등이 개인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으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시험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자녀가 가지도록 해야 한다. 입시가 개인의 성장과정에 있어 중요한 관건임에 틀림없으며 동시에 그들의 양육에 대해 청지기적 책임을 가진 부모들에게도 큰 시험의 기간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계속 격려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돌보며, 휴식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노력한 만큼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된 자나 자녀된 자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란 귀한 존재요 나면서부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학업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나은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지 최고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 타국에서 공부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 현 주(미국 버클리대학 졸업)

최근 물의를 빚은 사건으로 인해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더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부 학생들에 국한된 것이고 대부분 멀리 타국에까지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5년 전 미국에 왔다.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지구촌 시대에 활약할 세계 속의 한국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땀 흘려야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전문을 넓혀야 한다고 당신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4남매를 모두 내 보내셨다. 어린 우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채우시리라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주권이 없기에 주립학교에 다니면서도 남들의 몇 곱절의 학비를 내야 했고 정부의 재정 보조도 우리에겐 예외였으며 유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다. 공부 자체도 힘들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취미활동, 씨름활동, 직장 경험 등이 미국에서의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국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에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매년 학비가 오르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다양한 경험에의 욕구를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

★ (4면에 계속)

여름기획 / 미래 세계지도자들에게 새 힘을!

★ (3면에서 계속)

른다. 언어 때문에 겪는 시련과 그들의 미묘한 차별의식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우리의 영어구사 실력으로는 미국 학생들과 동등하게 알아가지고는 같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훨씬 더 잘해야만 한다. 더욱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수업참여도(Class participation)를 반영하기 때문에 잘 알아도 표현을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뿐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지 못해 점수를 깎기는 억울함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또 하나 뛰어난 힘이었던 장벽은 한국에서의 주입식 교육에 암기위주의 단순한 사고에 익숙해 있었던 나는 그들의 논리적 사고와 신랄하기까지한 그들의 논쟁 실력이었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기도와 피땀어린 노력으로 멀리까지 보내어 수학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기억할 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빚진 마음이 드는 것이었으며,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유학생에 대한 선입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을 알게 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지탱하기 힘든 나날이었다.

그러나 안팎의 어려움이 억누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실력도 모든 훈련시켜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뜻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열심히 하였더니 우등생 대열에 서게 하시고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주셨으며 영어가 유창한 미국 학생들을 대표하여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할 수 있게도 하셨다. 모든 일들이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졸업 이후에도 좋은 길들이 열리고 있고, 함께 온 우리 형제들 모두 선례를 뒤엎는 특별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목상할수록 더욱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하리라는 결심만을 하게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대로 체롭게 하신 일들을 그리운 고국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을 돌린다.

◆ 기도 결연자에게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잊지 마세요”

천 병 희 (권사)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기도후원자가 되어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두 손자, 한 손녀(두 남학생과 한 여학생)를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어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0이 넘는 할머니로 친손자가 고 1이며 예전에 딸을 대학에 보낸 적도 있지만 이리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는 처음인듯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손자, 손녀를 오늘도 기억하며 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말이라요. 더위도 ‘여름이니까 덥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 생각하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져 먹길 바래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 못한 형제들도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시요.

사랑하는 ○서, ○민, ○원! 그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요? 거리상 좀 멀기 때문에 새벽기도회는 서울교회까지 못하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 4시 30분이면 나아가 기도하지요. 온 식구가 학교로, 직장으로 다 떠나고 나면 나 혼자 10시에 또 기도하려 가요. 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짐 없이 이 세상 살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요! 오늘의 조그만 어려움은 참고 내일의 즐거움을 바라보자구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 분만 믿고 의지하여 그 분 뜻대로 일생을 살아가길 빌겠어요.

고 3을 위한 기도회

고등부에서는 다음 주일(21일) 오전 11시에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3학생들을 위해 장로, 권사, 교사, 선후배가 한 명씩 기도후원자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결연 모임을 갖는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갖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실력을 연마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매진하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임이다.

■ 때 / 1994년 8월 21일(주일) 오전 11시

■ 곳 / 4층 고등부 집회실

■ 대상 / 진학과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은 누구나

■ 목회자, 교우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오는 18일 ~ 20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제 21차 전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총회에서 개최설교 및 주제강연을 한다. 이 대회에 우리 교회 교우와 권사가 예배 시 특송을, 허희철 집사가 한남 CBMC회원들의 합창 지휘를 담당한다.
- 박철훈 장로, 이정희 집사는 송파구 방이동에 연립주택 ‘빌라 아가페’를 준공하고 18일(목) 오후 1시에 준공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 김상철 집사(청년부 부감)의 저서 「7일간의 서울시장」 중국어판 출판기념회가 오는 16일 북경 소재 신화사 출판국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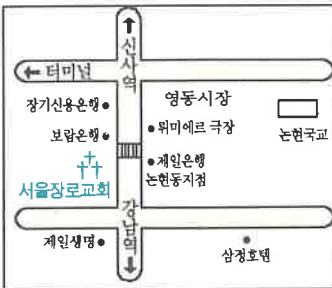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학업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양성되게 하옵소서.
2. 제 6학기목회자세미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이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3. 우리 민족에게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